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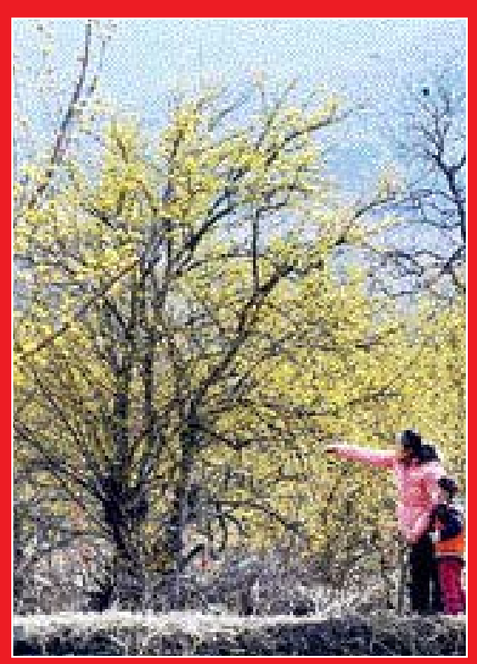
⑪ 남도 봄꽃 구경 오세요

7백리 발 닿는 곳마다 '色의 대향연'

남도의 봄은 '초록(Green)'이다. 남도 곳곳에서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아우성치며 솟아오르는 새 생명은 모두 초록색이다. 속살부터 물이 꽉 찬 나목들이 내미는 잔손짓도 초록이다. 아니다, 남도의 봄은 '빨강(Red)'이다. 못다 이룬 사랑을 각혈처럼 토해내는 동백꽃 피는 오동도, 백련사…. 그럼에도 봄은 사랑 가득한 '노랑(Yellow)'이며, 고결한 '하양(White)'이다. 산수유 꽃 흐드러진 구례 산동, 매화 꽃잎 하얗게 흩날리는 섬진강 매화마을, 해남 보해매실농원….

하여 남도의 봄은 그린 위에 레드와 옐로우, 그리고 화이트가 합창하는 꽃의 축제 마당이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의 첫 번째 유혹, 남도 봄꽃 마을을 찾아간다.

여수·광양·강진, 선홍빛 동백
구례 산동면엔 샛노란 산수유
광양·해남, 새하얀 매화 만발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남 보해매실농원의 매화, 여수 오동도의 동백, 구례 산동 산수유.

◇레드(Red)=남도의 유혹은 피보다 선연한 동백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중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우러진 선홍빛 동백이 섬으로 떠 있는 오동도는 동백꽃 여행의 일번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오동도의 동백은 겨울부터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해 3월이면 절정을 이루는데 섬 능선을 따라 동백숲을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광양시 옥룡면 백계산 옥룡사지의 동백숲도 오동도 동백숲에 견줄만하다. 신라 때 도선국사가 옥룡사를 창건하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보호수로 동백나무를 심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해발 400m의 야트막한 산자락에 동백 물결이 남실거린다.

강진 백련사 동백숲도 서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수령 300년 정도 된 1천500여 그루의 구불구불 키 자랑을 하고 있다. 백련사에서 다산초당까지 오솔길을 따라 하늘을 덮은 동백숲은 천연기념물 제151호. 다산과 백련사의 혜장선사가 함께 거닐며 나눴던 선문답(禪問答)이 지금도 동백나무 꽃잎 떨어지는 소리에 묻혀 아련히 들리는 듯하다.

◇옐로우(Yellow)=아직 가슴 시린 봄날 아침, 영원 불변의 사랑을 찾으려면 구례 산동으로 가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지리산온천지구에서 열리는 '산수유꽃축제'에 가면 수천만 송이의 노오란 사랑이 그대를 다사롭게 맞이할 것이다. 축제의 주제는 '영원불변의 사랑을 찾아서'다.

축제기간 중 산수유 쿠키 만들기, 산수유 물들이기, 산수유 한지공예, 산수유 두부묵 만들기, 산수유꽃 사진 콘테스트 등 56개의 이벤트가 열린다.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과 추억의 포크송, 탈춤 한마당, 좌도 농악 등 다채로운 공연도 곁들여진다. 〈문의 구례군 문화관광과 061-780-2224〉

◇화이트(White)=매화 꽃잎 하얗게 흩날리는 남도의 들녘에 서면, 비로소 애써 기다린 봄의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섬진강변의 매화마을, 해남의 보해매실농원이 벌써 어화둥둥 들썩이고 있다.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선 지난 8일부터 매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매화는 축제가 끝나는 16일부터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대는 백운산 산비탈에 위치한 청매실농원. 2천500개가 넘는 장독과 대나무숲,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흐르는 섬진강이 청매화 백매화 홍매화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하동 읍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오르면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만개한 매화가 시골 새댁처럼 수줍은 미소로 반긴다.

〈문의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 061-797-2221〉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보해매실농원도 빼놓수 없는 탐매(探梅)코스다. 1만4천여그루의 매화나무가 46만2000m²의 광대한 농원에 빼곡하다. 이곳에선 오는 22~23일 제7회 매화꽃 사진촬영대회가 열린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4명의 모델이 참가하는 '모델 부문'과 풍경 가족 연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 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전날까지 대회 인터넷사이트(www.bohaephoto.co.kr)를 통해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진대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꼭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찾아가 보라.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아름다운 광주사진' 콘테스트

무등산 철쭉 〈광주시 제공〉

광주시 공모전 11월1일~20일 작품 접수

광주시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홍보하기 위해 '2008 광주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홍보를 거쳐 11월1일~20일 작품을 접수한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자연경관 ▲문화유적 ▲축제와 특산물을 비롯한 생활상 ▲광주 도심의 비약적인 발전상 등 4개 분야이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1인당 출품작 수는 5점 이내, 규격은 11인치×14인치로 칼라사진(슬라이드 또는 디지털)이어야 한다. 작품 접수와 문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062-228-4774)로 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공모전 개최 공고를 한 뒤 11월 말 사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개 심사를 거쳐 시상할 계획이다.

금상(1점)에는 200만원, 은상(2점)은 100만원, 동상(3점) 50만원, 가작(5점) 20만원, 입선(50점)은 10만원 등 총 1천1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의 명소, 지역 축제, 먹을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촬영한 사진을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묵은 쓰레기 치우고 산뜻한 봄맞이

광주시민 등 1만여명 참여 대청소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를 기원하고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봄맞이 대청소가 지난 7일 광주시내 전역에서 실시됐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급 기관·단체 회원과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시가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도로 등을 말끔히 정비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상무지구 식당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청 직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청소와 함께 U대회 유치 홍보활동을 벌였다.

시는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U대회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 '1등 광주 1등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로 지정, 지속적인 질서계도와 청소를 병행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